

케이지의 관리(1)

입 병 규
<한국 바브록원종농장 전무>

케이지사육방법은 해를 거듭할수록 변화를 많이 해와 새로운 사육방법같지만 새로운 것은 아니다.

케이지사육은 일찌기 193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맨처음에는 철망바닥과 보온장치가 달린 조그마한 닭장으로 기후가 온화한 곳에서 사용되었다. 그후 바로 채란계가 조그마한 케이지에서 사육되기 시작하였다.

처음 산란용 케이지에서는 한마리의 닭을 수용했으나 후에 2 수용이 소개되기 시작하였다.

아마 현재에는 전세계적으로 산란실용계의 60~65%가 케이지에서 사육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요즈음은 새로 산란계를 사육하려면 대부분의 경우 평사사육보다 케이지사육방식을 취하고 있다.

케이지사육의 성패여부는 좁은 면적에 적응할 닭의 능력에 따라 좌우된다. 따라서 닭을 더 편안하게 해주고 관리의 노동력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끊임없이 진행되어 많은 변화를 가져왔지만 그 기본원리는 아직도 같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케이지사육방식은 여러가지가 있다. 각 케이지의 종류나 시스템을 권장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므로 여기에는 다만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을 간단히 설명할 수 있을 뿐이다.

각 케이지 시스템은 그 나름대로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성계를 케이지에서 사육하는 것은 평사에서 사육하는 것보다 폐사율이 적고, 육시들의 염려가 적으며, 노동력도 적게 들고 달갈도 더 깨끗하

다. 그러나 평사에서 사육하는 것보다 마리당 치움에 투자하는 비용이 많이 들고, 계란생산도 적으며 파리문제도 귀찮은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케이지사육은 현대화된 가금생산시대에서는 더 큰 이익을 주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1. 육추—육성케이지

케이지사육방법이 초생추부터 성숙기에 도달할 때까지 모두 철망바닥에서 사육하는 것은 아니다.

이 기간동안 철망바닥이 있는 케이지와 평사를 사용하는 베가지로 사육하는 방법이 있다.

- ① 케이지육추, 평사육성
- ② 평사육추, 케이지육성
- ③ 육추와 육성을 분리한 케이지사육
- ④ 한 케이지에서 계속적으로 육추, 육성

가. 육추케이지

이 분류는 육추와 육성을 하기위해 사용하는 방법과 장비의 제작방법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다르다.

보통 병아리는 보온장치가 있는 한개의 바터리케이지에서 육추가 시작된다. 그후 육성된 닭들중 일부는 닭이 커감에 따라 바닥넓이가 더 넓어져야 되므로 더 많은 케이지바터리로 옮겨 수용된다. 그러면 육추용케이지의 세부명세를 살펴보기로 한다.

1) 육추케이지의 크기

육추케이지의 높이는 병아리와 육성추에서 보통 14~16인치(35.6~40.6cm)로 사용되고 있지만 바닥의 넓이는 여러가지이다. 보통 사용되는 바닥면적은 다음과 같다.

22×14 인치 (55.9×35.6cm)

22×24 " (55.9×61.0")

24×24 " (61.0×61.0")

24×27 " (61.0×68.6")

24×36 " (61.0×91.4")

2) 바닥재료

육추용케이지바닥은 다음과 같은 물질로 만들어 진다.

가) 철사(용접된 것)—철망눈금은 보통 $\frac{1}{2} \times 2$ 인치(1.3~5.1cm) 또는 1×1인치(2.5×2.5cm)이며, 철사굵기는 14번선정도이다. 만약, 철망눈금이 $\frac{1}{2}$ 인치보다 클때는 처음 2주간동안은 철망위에 종이를 깔아줘야 된다.

나) 구멍 뚫린 강철판

다) 플라스틱—완전플라스틱이나 플라스틱으로 감싸인 줄

3) 바닥경사

육추용의 케이지는 대부분 바닥이 경사가 없다. 그러나 모이통전면으로 약간의 완경사로 올라간 것도 있다.

4) 케이지전면

대부분의 경우 통로와 가장 가까운 육추케이지전면에서 급이가 행해지고 있다. 케이지전면은 닭이 케이지밖으로 나가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급이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5) 분

분은 병야리를 케이지안으로 넣거나 빼내기가 가능하도록 케이지안쪽에 만들어져 있으며 위치는 전면이나 위에 있는 것이 보통이다.

6) 보온장치

보온이 된 육추실이 아니면 육추에 필요한 약간의 열공급이 필요하다. 여러가지의 보온장치가 있지만 보통 온수관이 사용되고 있다. 이 온수관은 각 케이지후면위로 계사길이만큼 쪽 걸쳐 있다.

7) 급수기

컵, 물방울꼭지, 흡이 패인 봉상형관등 여러가지가 급수기로 사용되고 있지만 그 종류에 관계없이 닭이 커감에 따라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급수기높이가 조절될 수 있어야 한다.

8) 급이기

흡이 패인 봉상형관이 육추케이지에서 대부분 사용되고 있다. 이것은 인력이나 기계를 이용해 자동적으로 사료를 채워줄 수가 있다. 이것 역시 높이 조절이 가능해야 한다.

나. 육성케이지

육추용케이지가 보통 육성할때도 사용되기 때문에 육성 케이지 역시 육추용케이지와 비슷하다.

육추실과 구분된 육성사가 있을 경우 별도로 육성용케이지가 사용된다.

1) 케이지크기

닭의 크기와 연령에 따라 각 케이지에는 점점 적은 수를 수용해야 하므로 대부분의 경우 육추용케이지와 비슷하다.

2) 바닥

바닥의 철망눈금은 계분(鷄糞)이 쉽게 떨어질 수 있을 정도면 된다. 실제로 사용되는 철망눈금크기는 여러가지이다. 그리고 바닥은 평평해야 된다.

3) 급수기

급수기종류는 육추케이지와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높이는 육추용케이지의 경우보다 높아야 된다.

4) 급이기

육성중인 닭에게는 흡통이 패인 봉상형 관 급이기가 인력이나 자동적으로 사료를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렇다고 케이지밖으로 급이기를 설치할 필요는 없으며 양쪽케이지에서 먹을 수 있는 경우 케이지사이가운데에 설치된 것도 있다. 급이기는 사료 낭비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가장자리가 잘 구부러 있어야하며 폭은 5~6인치(12.7~15.2cm)가 적당하다.

다. 육추—육성이 분리된 케이지

이 시스템은 육추시에는 한 계사 또는 한개의 케이지가 필요하며 육성시에는 다른거나 또 더 큰 계사가 필요하다.

이 사육방법의 장단점은 아래와 같다.

장점: ① 이 사육 방법은 다단(多段)케이지가 사용될때 좁을 면적을 가장 잘 이용

할 수 있다.

② 케이지설치를 저렴한 가격으로 간단하게 끝낼 수 있다.

③ 육추사에서 닭의 수용밀도가 높으므로 육추시 보온비용이 적게 든다.

단점 : ① 육추사이사이 계사가 비어있는 공백기가 길므로 육성비가 증가한다.

② 이 공백기를 감소시킬려고 계획을 짜면 주어진 시간내에 청소와 소독을 하기 어렵게 된다.

③ 다른 계사로 옮길때 닭에게 주는 스트레스가 커진다.

라. 육추—육성 병용케이지

이 사육방법은 닭이 산란장소로 옮겨질때까지 1일령부터 같은 계사 또는 케이지에서 사육된다. 이 케이지는 닭이 충분히 자랄 수 있을 정도로 넓다. 그러나 어떤것은 육추에만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이 사육방법의 장단점은 아래와 같다.

장점 : ① 닭을 다른 계사로 옮기지 않으므로 이동에 따른 스트레스가 적다.

② 공백기가 짧다.

③ 닭을 큰 케이지에 옮겼을 때보다 부리자르기 또는 예방주사를 놓을때 노동력이 적게 든다.

단점 : ① 대부분의 경우 육추와 육성을 분리시키는 것보다 한개의 케이지제작비가 많이 든다. 그러나 이 방법은 육추케이지의 장소에 따라 달라진다.

② 사이즈가 크므로 육추기간동안 계사 온도가 더 낮다.

1) 단수(段數)

육추—육성·병용케이지에서는 1단, 2단, 3단으로 사육되고 있다.

가) 1단—닭의 수용밀도가 적어 계사건축비가 많이 들므로 새로 설치하는 경우 대부분 1단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

나) 2단—한 단의 케이지에서 약 21수부터 시작한다. 열은 이 1단에서 공급된다. 6~8주에 각 케이지닭의 반수를 보온된 위아래케이지로 옮긴다.

다) 3단—처음에는 보온된 케이지에서 거의 36수부터 시작된다. 후에 $\frac{1}{3}$ 을 위 또는 아래 케이지

지로 이동시킨다. 그리고 약 6주가 경과했을때 나머지 닭중 반을 빈 케이지로 옮긴다.

계분제거

계분은 케이지의 철망사이로 해서 아래바닥에 떨어진다. 케이지가 1단이거나 또는 2단처럼 하단케이지 바로 위에 상단케이지가 없을때는 간단하나 3단일 경우 상단과 아래 두단이 겹쳐지므로 문제가 된다. 이런 경우 닭에게 계분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위해 철망바닥아래 경사진 계분받이판이 끼워져 있다. 이 판은 대부분 양쪽 케이지 중앙쪽으로 있으며 계분은 바닥중앙의 같은 장소에 떨어진다.

바닥의 계분제거

콘크리트바닥이 케이지 계사에서는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는 않지만 계분을 닦아낼 때에는 도움이 된다. 대부분의 계분을 긁어내는 기구는 케이지아래 바닥을 가로질러 리아카나 소형트랙터로 계분 긁는 기구를 밀거나 잡아당길 수 있도록 자동으로 되어 있다.

계분을 모으는 바닥홀

케이지사육에서 이 방식은 보편화되고 있다. 통로는 일하기 편하게 케이지 사이에 있으나 케이지아래지역은 비어있으므로 흙을 파서 계분이 흙안으로 떨어지게 한다.

2. 육추—육성케이지계사

육추—육성계사의 폭은 계사안에 설치될 케이지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온화한 기후에서는 작은 계사가 바람직하며 한쪽이 커텐으로 된 적당한 지붕으로 된 계사가 좋다. 이 커텐은 혹심한 기후일때 몇주일간만 사용될 뿐이다.

높은 수용밀도

2단이나 3단 케이지가 있는 계사에서는 수용밀도가 높은 것은 확실하다. 따라서 반드시 충분한 환기를 해주어야 한다. 온대나 추운 지방에서 환경 조성이 잘된 계사는 신선한 공기를 일정하게 잘 공급해주며 습기나 암모니아의 냄새를 잘 제거해 준다.

수용능력 : 케이지사육은 닭이 철망바닥에서 육성되므로 평사에서 사육되는 것보다 바닥면적이 훨씬 적어도 된다. 케이지시설과 닭의 일령에 따

라 평사보다 3~5배까지의 많은 닭을 수용할 수 있다.

냉각시키기 : 케이지계사에서는 이와 같이 많은

닭이 있으므로 계사온도를 적당하게 유지시키기가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신은 수탉이 돼서

이조 선조때의 이름난 재상 오성이 항복이 그렇게 껴가 많고 익살이 대단 했어도 이때에 한번만은 골탕을 먹지 않을 수가 없었던 이야기이다.

선조대왕이 일부러 한번 오성을 끌려 줄양으로 다른 신하들에게는 내일아침에 달걀 한개씩을 가지고 오라해놓고 오성에게만은 아무말도 안했다.

다음날 아침에 조회를 마치고 나서는 대왕은 「경들은 내가 전에 부탁한 것을 가지고 왔오?」 「예에」

모두 대답을 하는데 오성만은 뭐가 어떻게 된 것인줄 알 까닭이 없어 눈이 둥그래져 있었다.

「그러면 여기다 내어 놓으시오」

모두 소매속으로부터 내어 놓은 것을 보니 한개

씩의 계란이었지만 오성은 역시 어리둥절하고 있을 도리밖에 없었다.

대왕은 오성을 보고서

「경은 어째서 안가지고 왔오?」

재상의 몸으로 있으면서 상감의 분부를 모르고 있었달 수도 없고 해서 별안간 활개치는 흉내를 하면서

「꼬끼오—」

하고 닭소리를 한다.

대왕은 웃지도 않고 오성을 보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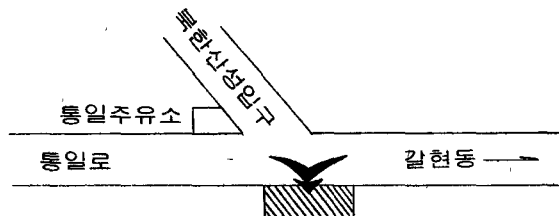
「그건 뭇하는 거요?」

오성은 엎드려 절을 하면서

「예에, 신은 수탉이 돼서 알을 낳지 못했사옵니다」

약품 구입은!

1. 가축약품
2. 농 약
3. 인체약품



新 進 藥 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진광동533-1

TEL 38-5001 · 8601 交 1533

신
진
약
국